

이덕일의 '역사의 창'



‘한국 독립사’ 재간행 누가 방해하는가

필자가 대학원에서 독립운동사를 공부할 때 의아했던 것은 대부분의 자료가 일제 관련 자료라는 점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이 왜경(倭警)이라고 불렀던 일제 경찰 등의 자료는 독립운동의 실상을 알기에 대단히 부적절했다. 왜경은 고문을 해서라도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 한 반면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고문을 참아 가며 정보를 보호하고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료가 기초자료가 된 것은 이유가 있었다. 이병도·신석호 같은 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출신들이 이른바 국사학계(?)의 태두(泰頭)가 되어 현대사 연구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이런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에게 현대사는 곧 독립운동사였던 것이 실제 이유였다.

1980년대 후반경에야 일부 역사학자들이 현대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그 사이 생존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생존 독립운동가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 것이었다. 그 후 최승환·김승학 선생 등 생존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쓴 ‘한국독립사’라는 역작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김승학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사장과 참의부 참의장 등을 역임했는데, 1960년 초 심산 김정숙 선생, 임정 의정원 의장 출신의 오산 이강

선생과 함께 생존 독립운동의 3기둥으로 불렸다. 최승환은 상해 시절 백암 박은식 선생이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한국통사(韓國痛史)’를 쓸 때 자료 수집 등을 도왔다. 백암과 최승환은 이때 “다음에는 나라를 되찾은 웃음의 역사인 ‘한국독립사’를 편찬하자고 굳은 맹약을 했다. 한데 백암이 먼저 세상을 뜨자 최승환은 이 맹약을 지키기 위해 한손에는 총을 들고 영토전쟁에 나서는 한편 다른 손에는 붓을 들고 역사전쟁에 나섰다.

최승환은 1929년 11월 만주에서 체포되어 1935년 4월 평양형무소에서 출옥할 때까지 5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그는 ‘내가 불행히 왜경에게 체포된 후 팔다리 부러지는 수십 차례 악역을 당한 것이 주로 이 자료수색 때문’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일제는 최승환이 모은 독립운동 자료 색출에 사활을 걸었다. 광복 후 최승환은 광복군 3지대장이었던 백파 김학규 장군과 정의부 중대장으로 19년간 최장기 투옥수였던 장군 정이형 선생 등 생존 독립운동가들과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를 만들어 ‘한국독립사’ 집필에 나섰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때는 최승환이 일시 구속되는 등 탄압을 받아 간행하지 못하고, 1965년에야 겨우 간행할 수 있었다. 최승환은 출간 전인 1964년 세상을 떠나면서 서문만 남겼는데 “붓이 여기에 이르매 백암 동지의 추억이 새로워 눈물이 지면을 적신다”라고 회고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눈물로 쓴 ‘한국독립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대부분 한자(漢字)여서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웠다. 또한 최승환이 피로 지친 사료들과 생존 독립운동가들의 육필 이력서 등 수많은 자료도 정리해야 했다. 그래서 2015년 광복 70주년과 ‘한국독립사’ 출간 50주년을 맞이해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던 최승환의 독립운동사 사료들을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이배용 원장과 5년간 재간행 사업에 합의했다. 그러나 1년 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안병욱 교수 한중연 원장이 되자마자 이 사업이 강제로 중단됐다.

옛그제 봉오동 승첩의 주역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되었다. 한데 방송에도 나왔던 ‘봉오동전투도’는 이 전투에 실제 참여했던 철마(鐵馬) 박승길(朴承吉) 선생이 작성한 지도로서 최승환 사료 중의 하나였다. 필자는 이병도·신석호의 제자들이 역사학계를 완전히 장악한 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보수의 가면을 쓰고,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진보의 가면을 쓰며 식민사학을 수호해 왔다고 비판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항일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담이 들어맞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전형적인 분야가 역사학과와 그 카르텔이다. 그러나 ‘한국독립사’ 재간행 사업은 언제가는 다시 시작될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이 나라를 다시 세운 독립운동의 가치는 이 민족이 생존하는 한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순천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김명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과장

치통 유감

통증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 통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통증을 감소시키고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야 하며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통증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그 강도를 객관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순위를 정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심한 통증들을 굳이 꼽자면 다음과 같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대상포진, 요로결석, 삼차신경통, 통풍, 치통, 궤양염, 수술 후 통증, 박막염, 암성 통증 등이 있다. 이 중 치과 영역에는 삼차신경통, 치통, 수술 후 통증 등이 있다. 삼차신경통과 출산의 경험 중 삼차신경통이 더 고통스러웠다는 이도 있고, 요로결석과 치통을 경험한 이들 중에도 치통이 더 심하였다는 이도 있으니 치과 영역의 통증도 꽤 심각하다 하겠다. 물론 발생 시기에 따라 느끼는 강도가 다르니 이를 객관화할 수는 없다.

치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예방법을 알아보자.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성종은 치통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마땅한 진통제도 없었고, 기껏해야 의원들이 흘리는 방약 정도인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성종은 명나라에서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보려 했으니 그것 역시 실패할 듯하다. 성종의 판야들

연산군도 치통을 피해갈 수 없었다. 칫솔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기복상 연산군이 처음 양치질할 수 있는 나무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한다. 명의 허준도 치통만은 어찌 못하였을 것이다.

치통은 충치로 인해 치아 내부에 염증이 생기는 치수염이 대표적이며, 사랑니 주위에 생기는 지주치위염, 치근에 생기는 치근단염, 치주에 생기는 치주염이 있으며, 이들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세균의 거주지인 치태(plaque)를 제거하는 것이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치태는 식사 때마다 입안의 음식물에 의해 생기기므로 평소 치태 관리를 지속적으로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칫솔, 치간 칫솔, 치실 등을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도 이에 해당한다.

치아이나 가글제에 함유된 약제로 치태 형성을 억제하기도 하고 치아를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불소이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당분이 들어간 과자와 음료 등을 피하고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길 권장한다. 더불어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자각 증상이 나오기 전에 치과 질환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치통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꼭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산업 나눠먹기식 안 된다

은 분명하다.

더구나 지난 3월에는 광주 첨단 3지구의 인공지능 클러스터 안에 구축하려는 인공지능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이 경기도 판교에 밀려 탈락했다. 32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광주 인공지능 클러스터의 핵심 인프라 가운데 하나였다. 또 최근에는 광주 등 6개 지자체가 경쟁했던 국가 로봉 테스트필드 혁신 사업에 대구가 선정되었다. 총 사업비 3000억 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간 진행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이처럼 광주에 인공지능산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로서 2020년부터 10년 동안 1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는 4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1단계(2020-2024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기술·인력 등 자원과 데이터센터, 실증 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집약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후 전남 조직 설치, 데이터센터 확공, 전문가 협업 체계 구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개원,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 지역 대학의 인공지능 학과 개설 등을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에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광주에 모여들면서 2019년 10월 인코어P&P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0여 개에 이르는 기업, 기관 또는 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창 탄력이 붙으면서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선도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선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도 한발 앞선 준비가 요구된다. 6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2단계(2025-2029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더불어 불특정, 사이버 보안, 메타버스 등 미래 유망 산업과 융복합하는 복안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인터넷 강국,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빠르게 추격을 해야 하는 분야인 것이다. 세계적 수준과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지난 2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착수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광주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핵심거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켜 줄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주는 이제 막 인공지능산업의 씨앗을 뿌렸고 거기서 싹이 움트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광주의 역할에 힘을 실어줄 때다.

社說

콘텐츠 부족 광주시 ‘문화수도’ 무색하다

국내 문화 콘텐츠 산업의 수도권 편중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매출액은 물론 사업체와 종사자 수에서도 비수도권을 압도하며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문화 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콘텐츠 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 콘텐츠 산업 백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 119조 원 가운데 수도권이 104조 원으로 87.4%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7조 원(64.8%), 경기 25조 원(21.3%), 부산 2조 3722억 원(2.0%), 대구 1조 8780억 원(1.6%) 등이었다. 반면 광주는 1조 341억 원(0.9%), 전남은 4562억 원(0.4%)으로 양 지역을 모두 합쳐 봐야 대구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역별 사업체 수도 서울이 3만 4725개로 전체의 33%를 차지했고, 경기 2만 802개(19.8%), 부산 5885개(5.6%), 대

구 5195개(4.9%)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3319개(3.2%), 전남은 2400개(2.3%)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종사자 수도 서울이 34만 363명(53.5%), 경기는 12만 8888명(20.3%)인 반면 광주와 전남은 각각 1만 2028명(1.9%), 6818명(1.1%)에 그쳤다.

이처럼 콘텐츠 산업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시장 자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데다 관련 분야의 국가 지원과 투자 역시 수도권에 쏠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지역 콘텐츠 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세워 투자 및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 광주시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산업 육성과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 콘텐츠 개발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광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초실감 융합콘텐츠 제작기지 조성 등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아할 것이다.

9월 열리는 잇단 비엔날레 준비에 만전을

제9회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와 2021 전남 국제 수목비엔날레 개막일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양 비엔날레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광주 비엔날레전시관과 목포문화회관·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센터, 전남도와 전남 국제 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두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를 해 왔다. 그동안 디자인과 수목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내세워 광주와 전남에서 개최해 온 이들 비엔날레는 지역의 여망 이미지를 굳혀 왔다.

지난 2005년 첫발을 내디딘 후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는 ‘욕망(Desire)·데이터(Data)·차원(Dimension)’을 뛰어넘는 혁명적 변화의 디자인 세계’를 보여 줄 계획이다.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인 전남 국제

수목비엔날레 또한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새로운 차원의 수목 세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 더욱이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는 비엔날레의 주요 프로그램을 아낌없이 보여 주면서 관람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달에 개막하는 두 비엔날레를 통해 최신 디자인의 새로운 세계와 전통·현대가 어우러진 수목의 향기가 코로나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공자의 제자 3000여 명 중 육에(六藝)에 통달한 이는 72명이었다. 사람들은 이들을 72현(賁)이라고 불렀다. 공자가 14년간 천하를 주유한 뒤 어려움을 회상하며 거명한 제자는 10명이다. 안연·민자건·염백우·중공·재야·자공·염유·계로·자유·자하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을 흔히 공문 십철(孔門十哲)이라고 한다. 이들 외에 공자 말년에 함유한 유약과 증삼까지 합쳐 12 제자가 단연 뛰어났다고 한다.

12 제자들 중 공자처럼 존칭의 의미로 ‘자’(子)를 붙이는 제자는 유자·증자·염자·민자 등이다. 유자는 공자와 생김새가 비슷한 데다 학문의 경지도 높아 공자 사후 가장 존경받았다. 유자가 강조한 것은 근본이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사자성어로는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김)과 ‘신사가복’(信使可覆: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며 남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함) 등이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공급’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 모두 대규모 공급을 통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입을

맞춘 듯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육세와 양도세 인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지정 등 거대 규제를 포함해 갖가지 카드를 쓰고도 실패한 문재인 정부를 보며 학습한 이들인지라 당연히 그럴 것이라 예상은 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건축물 동수는 무려 727만5266동인데, 이 중 주거용이 가장 많아 절반 가까이 된다. 또한 주거용의 70% 정도가 아파트다. 그런데도 신규 아파트는 꾸준히 증가해 조만간 도시 전체를 뒤덮을 지경이다.

이쯤 해서 ‘주택은 과연 아파트는 누구를 위해 짓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싶다. 부족하다면 어디에 얼마나 수요가 있는 것인지, 집 없는 이들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에 공급할 것인지,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구 팽창이 아니라 주택을 막무가내 공급은 후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근본을 살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의 도리 아니겠나.

/유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